

제 31회 극단 SAY 정기공연  
2004년 부산시 무대활성화지원금 공연

♥ 2004년 사랑티켓 참가작

A man and a woman are shown in a romantic embrace. The man is behind the woman, his arms wrapped around her. They are both looking towards the camera with soft expressions. The background is a warm, golden-yellow color with soft, out-of-focus pink blossoms, suggesting a spring setting. The overall mood is intimate and tender.

# 영기와 진택

그리운 진택에게  
처음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릅니다.

제 31회 극단 SAY 정기공연  
2004년 부산시 무대활성화지원금 공연

♥ 2004년 사랑티켓 참가작

# 영지와 긴택

작 : 이 강 백

연출 : 김 만 중

제작 : 김 문 응

기획 : 박 성 철

예술감독 : 허 윤 정

안무 : 김 서 리

박 미 애

조 형 창

합창작곡 : 김 영 도

조명오퍼 : 김 태 호

음향오퍼 : 진 해 원

분장 : 박 은 주

포스터사진 : 최 영 걸

팸플렛사진 : 윤 혜 진

제작지원 : 허 영 길

출연 : 박 현 형, 권 나 정, 호 민, 구 민 주

문 성 환, 박 미 애, 김 태 훈, 조 형 창

엄 준 필, 김 은 란, 김 율, 황 주 희

최 민 지, 김 아 람, 임 보 라

2004. 3. 19(금) 7시 30분

3. 20(토) 3시, 6시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2004. 4. 11(일) 7시

4. 12(월) 4시 30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연극제 참가작)

## 연출의 녀두리

### 영자와 진택을 무대에 올리면서....



연출/극단 SAY 대표  
김 만 중

얼마 전 영화 약속의 원작, 이만희 씨의 희곡 <돌아서서 떠나라>를 다시 읽어보았다. 한 깡패 두목이 이 권다툼으로 인해 반대파 깡패 두목들을 죽이고 숨어 있다가 자수한다. 20세기 후반 일어났던 서진 림싸롱 사건이 생각났다. 우리는 그들을 깡패새끼라고 불렀고 나쁜 놈들로 치부했다. <돌아서서 떠나라>의 공상두는 그러한 인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공상두를 보며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 그는 한국 건달의 구역들이 야쿠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의 앞잡이들인 반대파 두목들을 죽였고 부하의 충성으로 인해 숨어있을 수 있게 되었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자수를 결심하게됐고 채희주의 곁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죽음을 결심하는 의리있고 멋있는 건달이었다. 사형을 앞둔 그들의 면회실의 마지막 만남은 우리의 정서를 아련하게 자극한다.

<노틀담의 곰추>의 콰시모도가 생각난다. 흥측한 몰골인 그의 에스메랄다를 위한 사랑과 헌신, 희생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그의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만약 우리 주변에서 콰시모도와 같은 인물이 당신 주변의 한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주변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무엇을 느끼겠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는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는 그 사람의 접근-접근이라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을 바라보며 혐오스러운 감정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 지체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설립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러한 사람들도 <노틀담의 곰추>를 읽는다면 그의 아름다운 사랑에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현실에선 부정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드라마 속에선 아름답게 보여질 수도 있다. 현실에선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지던 것이 드라마 속에선 가장 추하게 드러날 수 있다. 어떤 진실이 더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드라마가 현실에선 보여지지 않는 존재의 이면을 일깨워준다는 것일 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드라마에 열광하며 TV와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연극도.....

난 개인적으로 국내 작가 중에서 이강백 선생님의 작품을 참으로 좋아한다. 물론 다른 몇 분들의 작품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각기 다르다. 내가 이강백 선생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두 번째 이유는 우화적이라는 것이다. 우화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하게 한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우화속에서는 진실이 존재할 뿐 현실을 재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연출가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더 많은 창조적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셋째로는 작품속에서 나타나는 이강백 선생님의 세계관이다. 부서지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벽을 상

대로 개인의 힘없는 도전을 해보지만 결국은 그 무너져버린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반항한다는 것이다. 난 선생님의 우화적 작품속에 나타나는 이런 개인적 반항심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인의 부질없는 반항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회적 억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새 연습실이 생겼다. 그리고 그곳이 곧 소극장으로 될 것이다. 며칠 후 연습실을 곧 비워야 한다. 소극장은 물건너 갔다. 또 며칠 후 가능하다. 영세한 극단이 연습실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 연극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갈림길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올 초 영자와 진택의 첫 연습을 새 연습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동과, 몇 년간의 공백을 깨고 새로운 단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힘차게 출발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작품의 제작에 들어갔다. 그런데 작품이 생각보다 힘들다. 읽을 때는 분명히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품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연출가를 괴롭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오랫동안 하는 작업이라 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상상력도 죽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시작하는 신입단원들에게 열정을 강요한다. 연극관에서 그들의 힘을 부추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다. 오로지 연극하나만을 생각하는 열정, 관객 앞에서 숨쉬고 싶은 열정. 공연날이 다가온다. 배우는 다 구했는데 전문 스텝들이 부족하다. 또 허선생님과 나, 둘이서 복치고 장구 쳐야하는 경우가 된 것이다. 그래도 항상 해왔듯이 죽는 소리 해가면서도 만들어나간다. 이제 전문 스텝들을 영입하여 키워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문제는 전문 스텝들은 열정가지고는 꼬셔지지 않는다. 스텝이라는 성격상 이성이 더 앞서기 때문이다. 어쨌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다. 그러던 중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주식하고 있던 기획이 휘청거린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은 든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당할 만큼 대통령이 낮아졌구나. 그리고 암담한 생각이 든다. 전에 다리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질 때 황 모 교수가 한 얘기가 생각나서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데 누가 연극보러 오겠어'. 이번에도 그러는 것이 아닐까. 현실에서 이미 현정 역사상 초유라는 이름이 붙은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영자와 진택을 보러 올까 라는 농담섞인 한숨을 쉬어본다. 그리고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와 다름 없는 감정으로 공연날을 설레이게 기다리고 있다.

### **롱 프라스 (생명공학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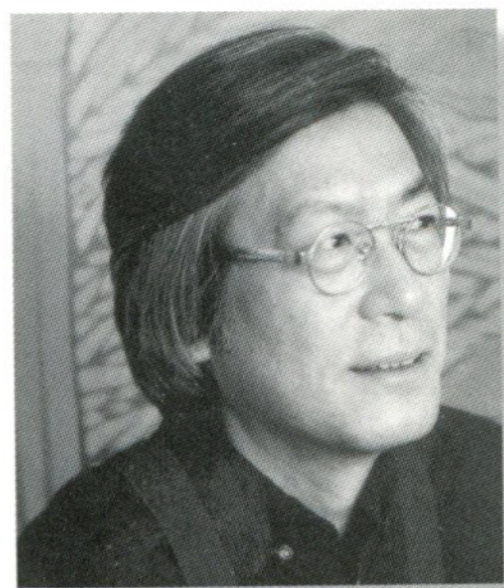
“당신의 신체 나이는?”

[www.longshot.co.kr](http://www.longshot.co.kr)

Tel. 051-936-2020, 2030

## 작가의 글

#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극작가/서울예술대학 교수  
**이 강 백**

〈영자와 진택〉은 1992년에 정진수 선생의 연출로 서울에서 처음 공연했었다. 그후 몇몇 대학극단들이 공연하였으나, 본격적인 공연을 내가 본 것은 울산에서였다. 2000년이었던가, 울산연극협회가 부산의 연출가이신 허영길 선생을 초빙하여 만든 공연이었는데, 그때 나는 무척 감명 깊게 보았다. 그리고 금년에는 〈영자와 진택〉을 ‘극단 SAY’가 부산에서 공연한다. 울산 공연과 부산 공연의 결정적인 역할을 허영길 선생께서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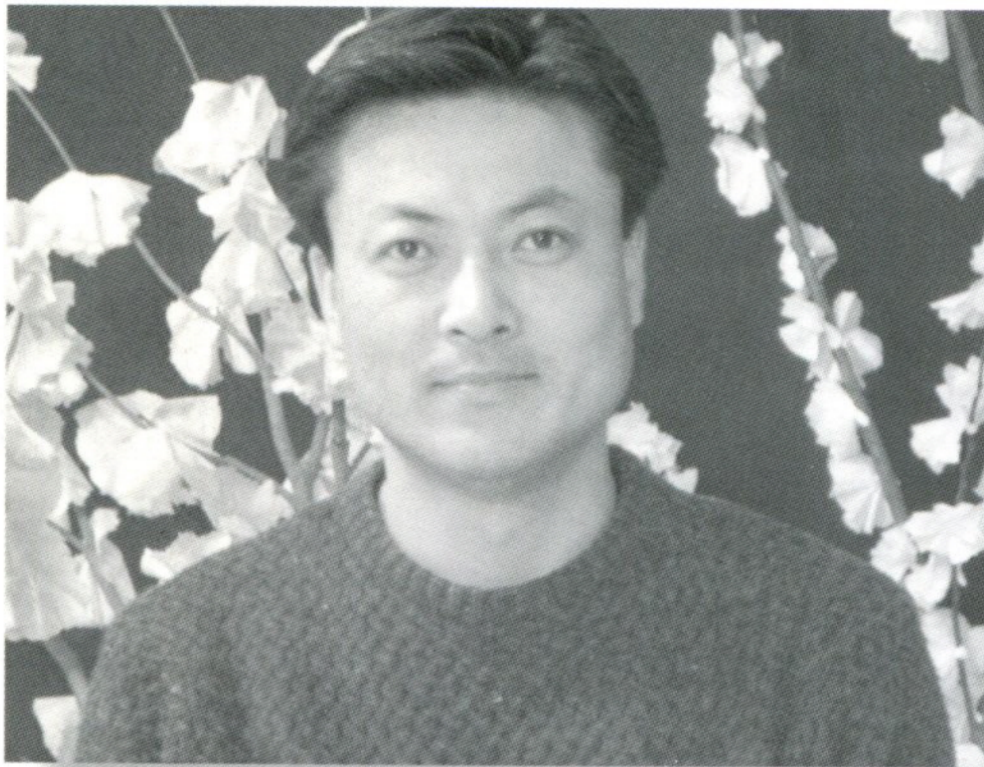
〈영자와 진택〉에는 세 가지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첫째 인물은 진택이다. 진택은 인간이란 본래 착한 존재인데, 사회적 조건이 열악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 둘째 인물은 봉제공장 감독이다. 그 감독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이므로, 사회적 조건을 좋게 개선해도 죄를 짓는다고 주장한다. 셋째 인물은 영자이다. 영자는 굶주리고 있는 친구를 위해 봉제공장의 옷을 훔치는 죄를 짓는다.

법적이며 도덕적 규범대로라면, 영자의 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랑이란 관점에서 보면, 영자의 죄는 규범을 뛰어 넘는 것이다.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예수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이 문제 때문이고, 이스라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이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를 더 이상 살려두면 사회혼란만 극심해질 뿐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결국 영자의 죄를 둘러싼 문제에서, 진택은 지고 감독은 이긴다. 즉, 법적이며 도덕적인 규범이 이긴 것이다.

〈영자와 진택〉은 기독교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타인을 사랑해서 죄를 짓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진택은 이 점을 알면서도,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죄지은 영자를 난폭하게 때린다. 진택의 이런 모습에서 자기 자신과 닮은 모습을 보는 관객이 있다면, ‘극단 SAY’의 공연은 성공한 것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애 쓰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CAST



박 현 형 / 진택役

E-mial: iyagihyung@naver.com

교육극단 이야기 대표

〈유랑극단〉 〈청춘예찬〉 〈뇌우〉

〈선샤인 보이즈〉 등 출연

권 나 정 / 영자役

E-mial: rnjsskwjd@hanmail.net

〈천국과 지옥〉 (파우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영원지애〉 출연



# CAST



호 민 / 원장役

E-mial: acen2000@hanmail.net

극단 아센 대표

〈배비장전〉 〈양파〉 〈유리동물원〉

〈여보세요 누구세요〉 외 출연

구 민 주 / 어머니役

E-mial: gumihoacen@hanmail.net

〈배비장전〉 〈양파〉 〈유리동물원〉

〈여보세요 누구세요〉 외 출연



# CAST



김 태 훈 / 관리인役

E-mial: eagylider@yahoo.co.kr

〈아우라지로 가는길〉

〈나 테러리스트〉 〈검정고무신〉

〈영원지애〉 외 출연

김 율 / 감독役

E-mial: namda82@hanmail.net

〈우리마을〉 〈판타스틱스〉 〈굿닥터〉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외 출연





# CAST



**문 성 환 / 이웃관리인役**

E-mial:mvocal@hanmail.net

동아대학교 음악과 초빙교수

오페라 <아이다> <휘가로이 결혼>

<사랑의 묘약> 외 주조연 출연

**조 형 창 / 이전 공장장役**

E-mial:feminist3@korea.com

<들풀> <아침엔 넷 점심은 둘...>

<탐윙컴퍼니 공연> 외 출연



# CAST



김은란 / 순자役

E-mial: ker6808@hanmail.net

〈파티〉 〈청춘예찬〉 〈우리읍네〉

〈한여름밤의 꿈〉 외 출연

엄준필 / 정자役

E-mial: red-hols@hanmail.net

〈10개의 인디안 인형〉 〈택시드리벌〉

〈SKIPPER 댄스공연〉 외 출연

*사랑에*



## 메트로 (Metro) 오페라단

단장

김

동

윤

(고신대 음악과 교수)

# CAST



최민지 / 애자役

E-mial:miracleangel@hanmail.net  
〈장미의 성〉 〈들풀〉 〈굿닥터〉  
〈시련〉 외 출연

황주희 / 민자役

E-mial:diva-heeya@hanmail.net  
〈로미오와 줄리엣〉 〈택시드리벌〉  
〈각종 댄스 페스티벌 참가〉



## 부일여성합창단

부단장

권영애 (주) 선보유니텔 대표이사

#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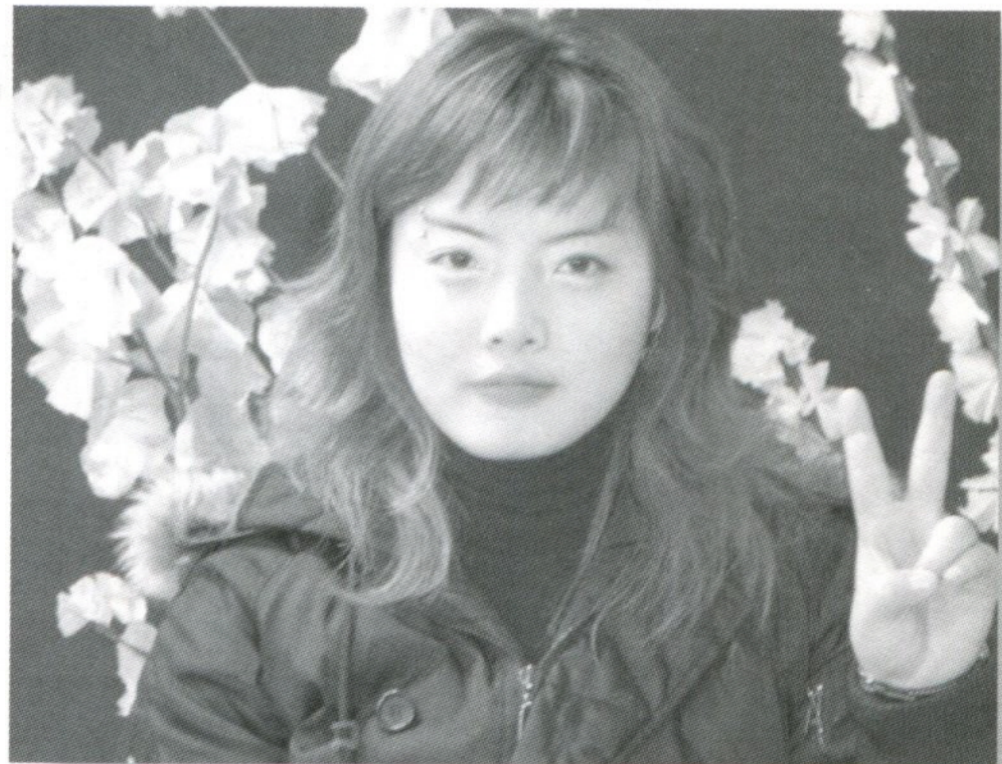


김 아 람 / 혜자役

연극을 사랑하는 연극학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_^

임 보 라 / 말자役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_^



## 부 산 콘 서 트 콰 이 어

상임지휘자

전 상 철

# STAFF



제작  
김문웅



제작지원  
허영길



기획  
박성철



예술감독  
허윤정



안무  
김서리



안무  
박미애



탭안무  
조형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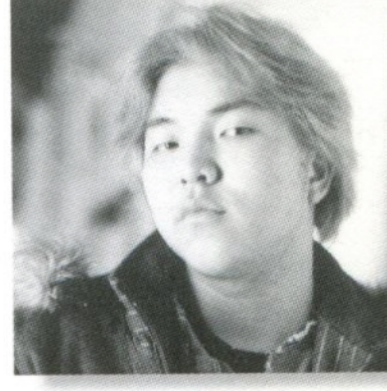
합창작곡  
김영도



미술  
조석진



무대제작  
김학지



조명오퍼  
김태호



음향오퍼  
진해원



팸플렛 사진  
윤혜진



포스터 사진  
최영길

분장  
박은주

그외  
경상대 방송연예과  
2학년 B반 여러분